

## 2011년 아프리카 민족들에 대한 유럽과 북미 정부들의 합의된 공격이 이루어지는 동안 유럽과 북미의 인텔리겐치아에게 고함\*

쿰마 엔둠베 III\*\*

번역: 정지은\*\*\*

친애하는 나의 학문과 사유와 글의 동료들이여,

Et ceterum censeo, Carthaginem esse delendam!<sup>1)</sup>

카토 켈토리우스는 로마 의회 앞에서 연설을 할 때마다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의 연설이 아프리카와 관련되지 않았을 때조차 말입니다. 전쟁은 기원전 150년에 발발했고 카르타고는 멸망했습니다. 2010년 이래 아프리카 민족들에 대한 유럽과 북미 정부의 합의된 공격이 일어났던 지난 비극적인 몇 달 동안, 우리를 멸망시킨 수백 년의 노예제도와 식민지 지배 이후 우리의 땀방울로 건설된

---

\* 이 글은 쿰마 엔둠베 III가 2011년 9월 19-2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에서 “카메룬과 독일 간의 포스트식민주의: 과학, 지식, 정의”를 주제로 개최된 학술회의의 개막식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쿰마 엔둠베 III (Kum'a Ndumbe III)는 카메룬의 왕자이자 야운데 대학(universités en études)에서 역사학 및 정치학 등을 강의하는 교수다. 또한 카메룬 작가 협회의 회장을 역임한 극작가, 시인, 소설가, 수필가이기도 하다.

\*\*\* 번역을 맡아준 정지은 박사님(홍익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1) “그리고 나는 카르타고는 멸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Im übrigen bin ich der Meinung, dass Karthago zerstört werden muss/ Et je suis d'avis que Carthage doit être détruit), 카토 켈토리우스(기원전 234 - 기원전 149)가 로마 의회의 연설 마다 말미에 반복했던 요청.

지역들에 대해 그들이 집중 폭격 작전을 감행하는 동안, 그들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자행된 이른바 ‘문명적’이고 ‘민주적’인 국가들의 야만적 행위들을 전 세계인들에게 왜곡 보도하는 지금 이 때, 우리 쪽 사람들, 북쪽 대적상대국과 통합한 사람들의 지원을 받은 고도 기술력의 서구 군대가 우리 형제자매들을 대량으로 학살하는 비극이 일어나는 지금 이 순간, 유럽과 북미의 인텔리겐치아가 형언 불가능한 것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실추를 정당화하기 위해 펜을 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역사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 앞에서 또 신 앞에서 각자 자신의 책임을 떠맡을 것을 시급하게 호소합니다.

## I. 21세기 초 현재 아프리카 인민들에 대한 합의된 공격

여기 독일의 영토, 여러분의 수도 베를린에서, 2011년 4월 14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8억9천3백만의 인구나 28개국을 재집결시키면서 오로지 6백 17만의 영혼들로 구성된 리비아 국민을 공격하는데 합의하고 그들의 고도 기술의 폭탄들을 투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리비아 정부도, 리비아 국민도 결코 유럽이나 북미 국가에 선전포고를 한 적이 없으며 블리츠크리크(Blitzkrieg)<sup>2)</sup> 공격, 다시 말해 전격전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니다. 코트디부아르 정부도, 코트디부아르 국민도 결코 유럽이나 북미 국가에 선전포고를 한 적이 없으며, 자신들 고유의 영토의 주권을 열망했던 남자들과 여자들에 대한 집단 학살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니다. 미국과 연합한 유럽은 최근 몇 달 동안 휴머니티라는 공공의 운명을 증진시키는데 실패했습니다. 서구는 윤리, 도덕, 진리에 대립되는 폭력을 전개하면서 완전히 발가벗겨졌습니다. 돈, 이익, 상급 국제 강도단의 공격은 휴머니티를 위한 최고의 가치로 승격되었으며 인텔리겐치아와 대자본 매체들은 이 새로운 가치를 ‘민주주의’, ‘자유’, ‘발전’이라는 용어들이 각인된 봉투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습니다!

2) [역] 전격전(電擊戰)의 독일어 번역어이다.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에 의해 사용되었던 전술로서 전차, 기계화보병, 보병, 항공기, 공수부대를 이용, 최대한 기동성을 추구하여 단 시간에 어느 한정된 지역을 공격하는 것을 말한다.

나, 벨레벨레 왕자, 권위 있는 대학의 교수, 당신들의 유럽어로 당신들에게 말을 건넌으로써 대화하려고 노력했던 작가, 이 나는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서구인들은 이라크 공격 이후 그들이 휴머니티 공동의 운명에도, 민족들 간의 대화에도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매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이 세계의 절대적 지배, 군사적 지배, 재정적 지배, 문화와 사유의 지배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우리의 민족들에게 서구와의 대화의 필요성, 휴머니티 공동의 운명을 위한 집단적인 참여의 시급함을 설득시키기 위해 밤이고 낮이고 싸워왔던 우리는 모든 신임을 잃어버렸습니다. 타민족들이 그들 고유의 영토로부터 몰려 받은 재산을 빼앗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당신들의 공격은 그런 우리를 항구적으로 약화시켰습니다. 아프리카 영토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구, 유럽-북미에 속해야만 했으며 이제 그러한 서구는 타민족들에게 부스러기만을 남겨주기로 결정할 것입니다.

1884-2011: 코트디부아르 폭격, 리비아 폭격, 아마도 임박한 카메룬 폭격이 우리를 베를린 회의로 보냈는데, 이 회의는 1884년 11월 15일부터 1885년 2월 26일까지 독일의 오토 폰 비스마르크 재상에 의해 소집된 바 있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이 부재하는 가운데 유럽인들은 유럽 대륙 너머의 일차적인 물질적 자원과 새로운 시장의 막대한 필요성을 깨달았으며 활발한 산업 혁명기에 놓여 있는 유럽의 경제 확장을 위해 콩고 강의 항해를 규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럽인들은 서로 간에 아프리카의 풍부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지 않기로 합의합니다. 그들은 베를린의 회의 테이블에 둘러앉아 합의하고,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각자의 영향권을 분배하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일어나 그러한 모든 합의된 공격 계획을 알지 못했던 아프리카 정부들과 국민들을 동시에 공격했을 것입니다. 유럽의 인텔리겐치아는 오히려 헤겔이 주장했듯이 아프리카인들을 '야만적인 민족,' '역사의 변방을 살았던 민족'으로 평가하면서 자신들의 야만적 행위들을 덮어 감출 것입니다. '문맹의 민족,' '이교도 민족,' '문명을 기다리는 민족,'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빛을 필요로 하는 민족,' '서구의 백인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다시금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수입된 동양의 아들. 그러

므로 식민지 지배는 유럽의 미디어, 중고등학교 교재들과 대학의 교재들, 종교서들, 유럽의 사상가들과 문인들의 소설과 희곡들을 통해 정당화되었을 것입니다. 19세기와 20세기에 다시 한 번 ‘평정’이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파피 전쟁, 아프리카 민족들에 대한 대규모 파피 전쟁이라는 사기에 대항하여 들고 일어난 유럽의 사상가들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 II. 무지, 사기, 여론 조작

“아프리카는 세계 역사의 일부가 아니다. 아프리카는 자신 안에 역사적 운동을 갖지 않는다... 우리가 정확히 아프리카를 통해 이해하는 것은 무역사적인 정신이다. 그것은 발전되지 않은 정신, 자연적인 조건들 속에 여전히 갇혀 있으며 여기서 단지 세계 역사의 입구처럼 제시되어야 하는 그런 정신이다.”<sup>3)</sup> 그리하여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헤겔(1770-1831)은 중요한 지표들을 정착시켰습니다. 이것은 헤겔이 사망한 지 176년이 지난 뒤에 프랑스 대통령인 니콜라 사르코지에 의해 다시 취해집니다. 그는 2007년 7월 26일 다카르의 체이크 안타 디오펜(Cheikh Anta Diop) 대학에서 아프리카 민족들을 모욕하는 담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리카의 비극, 그것은 아프리카 인들이 역사 속으로 충분히 진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아프리카의 농민들은 계절과 더불어 살아왔으며 이상적인 삶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제스처와 동일한 말들의 끝나지 않는 반복에 의한 리듬의 시간과 영원히 계속되는 재개(再開)만을 알 뿐입니다. 모든 것이 언제나 다시 시작된다는 그러한 상상적 세계 속에서는 인간적 모험을 위한 자리도, 발전의 이념을 위한 자리도 없습니다. 자연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그러한 우주 속에서 인간은 근대인에게 고통을 안겨다주는 역사의 불안을 피해잡니다. 오히려 인간은 모든 것이 이미 쓰여 있는

3) 헤겔, 『역사철학강의』, 클마 앤둠베 III, 장 이브 루드, 『흑백의 대화, 아프리카의 존재』, Paris, 1989, 27에서 재인용.

듯, 불변의 질서라는 환경 속에서 부동적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결코 인간은 미래를 향해 자신을 내던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인간에게는 스스로 운명을 발명하기 위해 반복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생각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sup>4)</sup>

자, 이것이 코트디부아르와 리비아를 향한 폭격이 있는 현재의 프랑스 대통령의 확신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만 그 구성원일 뿐인 우주에 대한 존경을 계속 고집해 왔으며, 우리를 떠받치고 우리가 살도록 허락하는 자연을 계속 존경해왔습니다. 휴머니티의 모든 발전은 그러한 존경에 의존하며,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본질적인 것을 박탈하고 극히 적은 소수의 지구인의 배만을 불리면서 휴머니티를 당파적 곤궁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전투적인 자본주의적 자유주의의 발전이라는 이념들과 상반됩니다.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학교의 프로그램 담당 저자였던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1879년 5월 18일에 이미 [그러한] 행위의 의미를 제공했습니다.

이 거친 아프리카는 두 가지 국면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 국면이란 미개함이며, 사람들이 없는 땅에서 그 국면이란 야생성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프리카는 피할 수 없습니다. 19세기에 백인은 흑인을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20세기에 유럽은 아프리카를 하나의 세계로 만들 것입니다. 새로운 아프리카를 재건하는 것, 옛 아프리카를 문명의 손아래 놓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유럽은 그것을 해결할 것입니다. 자, 국민들이여! 이 땅을 탈취하시오, 그것을 가지 십시오. 누구에게 속하는 것을?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 것을. 신에게

---

4) 체이크 안타 디옵 대학에서의 니콜라 사르코지의 연설, 2007. 7. 26. [http://www.lepost.fr/article/2009/04/07/1486509\\_video-le-discours-de-dakar-de-sarkozy.html](http://www.lepost.fr/article/2009/04/07/1486509_video-le-discours-de-dakar-de-sarkozy.html), 또한 다음을 볼 것: Sous la direction de Adame Ba Konaré, 『사르코지 대통령의 아프리카 역사 사용에 있어서 재정위와 관련된 개요』 (*Petit précis de renise à niveau sur l'histoire africaine à l'usage du Président Sarkozy*), préface d'Elikia M'bokolo et postface de Catherine Clément, Ed. La Découverte, Paris, 2008.

서 이 땅을 얻으십시오. 신은 인간들에게 땅을 제공했습니다. 신은 유럽에게 아프리카를 제공합니다. 이것을 가지십시오.)<sup>5)</sup>

놀랍지 않습니까? 하물며 지식을 지녔다고 여겨지는 유럽의 한 뛰어난 지성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러니. 하지만 이것이 유럽의 정치적인 남성과 여성들, 대다수 지성인의 지성과 전의식을 이끌었던 정신적 구조입니다. 그들의 사유가 아프리카로 향하고 있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이러한 바이러스를 몇몇 자신의 제자들과 아프리카 출신 제자들의 영혼 속에 주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은 유럽에게 아프리카를 주었습니다. 아프리카는 신이 결정하고 원했던 유럽의 소유물입니다. 헤겔과 빅토르 위고와 다른 유럽 지성인들의 시각에 따라 1884/1885년의 베를린 회의는 처음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유럽의 합의된 공격을 비준했습니다. 1957년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독립을 양도하기 전에 아프리카의 모든 국가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독자적 영향권 안에 머물도록 보장할 것을 프랑스와 영국에게 요구했을 것입니다.<sup>6)</sup> 그런데 리비아의 자마히리아(Jamahiriya libyenne) 수장인 카다피 대령은 결정적으로 아프리카 유니언을 지지하면서 아프리카를 결집시키기 위해 놀라운 액수의 돈을 투자합니다.<sup>7)</sup> 2006년에 카다피는 최초의 아프리카 위성인 RASCOM의 제작에 필요한 4억 달러 가운데 3억 달러를 지원합니다. 아프리카 개발 은행이 5천만 달러를 지원하고

5) 『노예제도 폐지 31주년. 빅토르 위고의 관장 아래 1879년 5월 18일 파리에서 열린 기념 연회』 가스통 제르빌-레이슈의 보고서 (Brière, Paris, 1879), 17.

6) “영국과 프랑스는 권력을 넘겨주기 전에 핵심전략시설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아프리카 영토에 대한 완전한 이용권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했다.” Christopher Coker, *NATO, the Warsaw Pact and Africa* (London, 1985), 8.

7) [역] 리비아의 자마히리아의 원래 명칭은 “사회주의 인민 리비아의 자마히리아 아랍”이다. 이것은 1977년 이후부터 카다피 대령이 지휘하는 리비아의 정치 체제에 의해 사용된 이름이다. 카다피는 리비아 왕권을 전복시키고 1969년에 권력을 획득한다. 그는 범아랍적이고 범아프리카적인 제 3세계주의자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그리고 곧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들과 아랍의 대부분의 국가들, 그리고 서구 세계와 적대적인 갈등 관계를 피하게 된다. 1977년 카다피는 리비아를 “자마히리아,” 이른바 “대중들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 공화국 형태의 정부를 내버린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주의와 이슬람을 동시에 포방하게 된다.

서아프리카 개발 은행이 2천7백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그리하여 아프리카는 2007년부터 대륙 내부의 전화 통화와 Intelsat와 같은 유럽의 위성들을 통한 통신 때문에 매년 지불해야 했던 5억 달러로부터 면제될 수 있었습니다. 리비아의 것이었으나 미국이 압류한 300억 달러는 리비아의 도시, 시르테(Syrte)에 있는 아프리카 투자은행의 재정에 출자되어야 했습니다. 2011년 야운데(Youndé<sup>8)</sup>)에 중앙본부를 두고 있으며 420억 달러의 자산을 지닌 아프리카 통화기금(Fonds Monétaire Africain)의 창설, 나이지리아의 아부자(Abudja)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공동 화폐를 발행하게 될 아프리카 중앙은행(Banque Centrale Africaine)의 창설.<sup>9)</sup> 북대서양조약기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러한 아프리카 민족들의 해방의 경험을 종식시켜야만 했습니다.

“아직도 카토는 외칠 것이다.” *“Et Ceterum censeo, Carthaginem esse delendam!”*

이런 이유 때문에 2011년 4월 14일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후원 아래 또 다른 회의가 베를린에서 열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리비아 정부와 국민을 향해 고도의 기술을 가진 군대들이 합의된 또 다른 공격을 시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프리카의 집집마다 이루어지는 서구의 미디어 전쟁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들은 [실상을] 이해했으며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카다피의 리비아에서는 거주, 의료, 교육, 식료가 무상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것을 유럽, 미국, 심지어는 아프리카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서구는 더 이상 강패를 체포하는 게 아닙니다. 수치가 실종되었으며 도덕심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기만과 거짓과 난폭한 힘이 유럽과 아프리카 간의 관계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유럽과 북미는 권력에 있는 아프리카 지도자들로부터 자신들이 아프리카의 자원들을 체계적으로 약탈하는 동안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반대하는 자들은 전복되거나 추방되거나 살해당하고, 아니면 그리

---

8) [역] 카메룬의 수도.

9) 장-폴 푸갈라, “리비아 전쟁의 진정한 이유,” <http://www.astelist.com/jupgrade/index.php/forum/blog-post/910-les-vraies-raisons-de-la-guerre-en-lybie-par-jean-paul-pougala>

한 목적으로 특별히 구상된 국제형사재판소(Cour Pénale Internationale) 앞으로 회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매우 특수한 국제 관계들 속에서 정의라는 용어는 그 어원적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2011년 5월 19일 리비아를 폭격하는 동맹국가 가운데 선두 국가로서 프랑스는 2011년 9월, 리비아 석유의 35 퍼센트의 지분을 주장합니다. 서구의 미디어들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독재자들을 쫓아내고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던가요? 그렇다면 아프리카를 문명화하고 민주화하는 그러한 도약 속에서 석유 자원의 지분은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사르코지씨?

자 이것이 2011년 올해 유럽, 북미, 아프리카 대륙 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학문 연구에서의 관계, 연구 결과들의 분배에서의 관계, 지식 전파에서의 관계, 문화 관계들 속에서의 관계는 오늘날 군사적 전투의 장으로 변질된 정치적·경제적 이익의 장에 기입됩니다. 오늘 프랑크푸르트에서 카메룬과 독일 간의 (포스트) 식민주의라는 주제로 열린 이 강연회는 힘의 난폭한 사용의 궤적 안에 기입됩니다. 돈의 타격적 힘과 군사 폭격에 외교가 자리를 완전히 내어주면서 아프리카인들이 유럽·미국의 파트너들이 그려놓은 길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 Ⅲ. 연구의 재정지원과 학문적 대화라고 가정된 것에 관하여

자, 여러분은 제게 물을 것입니다. 대륙 너머에서 학문적 연구, 문화, 사유 속 대화를 위해 작업하는 우리, 우리가 이제부터 무엇을 붙잡아야 하겠느냐고 그리고 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부채가 매우 많은 가난한 국가가 학문적 연구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국제적인 학문적 대화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겠느냐고 북아프리카의 46개국은 4천 억 달러라는 커다란 부채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가 각각 2조 달러라는 부채를 쌓아놓고 있으며 부채국가 가운데 챔피언인 미국은 14조 달러의 빚을 과시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자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럽·미국의 미디어들은 아프리카의 공간이 빈약하며 공간의 내용물을 계속해서 비축해야 한다고

지겹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2011년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는 자국의 자원의 개발과 이용을 통제하는데 이르지 못했으며 더 나아가 자원의 정당한 분배에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문적 연구는 적절한 재정 지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독일과 관계하면서 카메룬은 중등 교육과 고등 교육에서의 독일어 교육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와 관련된 재정적 지원은 대학 교수들에게 수여되고 있습니다. 역사와 독일 연구 분과들은 또한 카메룬과 독일 관계의 역사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국가 간의 역사, 정치, 경제, 혹은 문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진정한 카메룬의 연구 기관들이 없습니다. 카메룬은 독일, 유럽, 혹은 다른 곳에 그런 작업을 수행할 만한 기관을 전혀 설립하지 않았습니니다. 반대로 독일은 대학과 연구소 조직 덕분에 베이루트, 라이프치히, 베를린,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등등의 도시에 아프리카에 관한 중점 연구소들을 설립했습니다. DAAD, 훔볼트 재단과 같은 기관들, 프리드리히-에버트 재단, 하인리히 뵐 재단, 한스 자이델 재단과 같은 정치 재단들, 피테 인스티튜트 등등, 독일에서 매우 활동적인 이러한 기관들의 지부가 카메룬 영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2009년 야운데 대학에 DAAD 정보센터(Centre d'Information du DAAD)가 만들어졌고 다른 작은 지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독일 간의 학문 협력 센터(CCSAA)는 2011년이 지나기 전에 가동될 것입니다. 이 두 센터는 독일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 쪽에서 독일이 카메룬에 대한 연구와 카메룬과 함께 하는 연구를 확보하기 위해 기관들을 만들었다면 카메룬은 그와 필적할 만한 조직들을 갖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칭 속에서 (포스트)식민주의에 관한 연구의 방향과 장, 문제가 되는 두 입장 간의 토론, 연구 결과의 전파가 근본적으로 독일의 주도권, 그리고 독일의 조직들과 재정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칭은 카메룬과 독일, 양측 관계에 관한 생각, 이 관계의 설립, 연구 결과에 한계를 가져옵니다.

나는 한 가지 사례를 통해 그러한 비대칭을 제시할 것입니다. 내가 80년대에 야운데 대학의 인문사회과학대학에서 독일 연구 분과를 맡았을 때 나는 독일 식민지 시대에 관한 연구를 통해 자원을 이용하는데 있어 이미 비대칭이 존재했었

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카메룬과 독일의 고문서들 속에서 우리는 카메룬인이 작성한 몇몇 매우 드문 서류들을 제외하고, 독일의 행정당국, 종교기관, 혹은 시민기관이 작성하고 쓴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고문서 서류들의 제작 자체에서 비대칭이 확인된 것입니다. 혹은 문제가 되는 건 양측의 관계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1982년에 “카메룬에서의 독일 시기의 회고”라는 학제간 연구 모임을 만들었으며, 두 번째 모임, “독일 식민지 시기의 기초 문서들의 번역”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카메룬 연구자들 대부분이 독일어를 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카메룬 전국을 돌아다녔고 본인이 직접 독일 식민지시기를 살았거나 그 부모들이 살았던, 이미 매우 연로한 카메룬인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학제적으로 구성된 매우 상세한 질문들을 토대로 120명의 카메룬인들의 독일 식민지 시기의 증언을 녹취할 수 있었습니다. 대담자들은 그들의 카메룬어로, 프랑스어로, 혹은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곧 30년이 되는 이 녹취록은 그 매체, 즉 녹음테이프라는 매체의 성격으로 인해 파손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학문 작업은 그것들을 다른 매체로 옮겨, 프랑스어나 영어만이 아닌 그 본래의 언어로 그것들을 전사하고 번역하고 출판하는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작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상대국들 대부분이 오로지 다른 매체로 인터뷰를 전사하는 데만, 그들이 그러한 문서들에 접근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 전사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미국인 상대자는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 고문서의 “소유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미국인 상대자에게, 그리고 미국인 상대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고문서의 “소유권”을 넘겨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상대자들은 또 다른 매체로의 전사에서부터 인터뷰의 번역과 출판에까지, 그 계획 전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연구의 결과가 그러한 국제적인 관계, 양측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진전시킬 것이고, 그 관계에 연루된 다양한 상대자들에게로 되돌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독일 식민지 시기의 카메룬인들의 증언에 관한 이 연구의 여정에서 우리는 증인들이나 증인들의 부모가 카메룬의 언어들로 기록한 자필 문서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족장관할구역들, 독일 식민지 시대의 학교 선생들의 가족이나 카메룬 선교사들의 가족이 아직까지도 문서들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그것들을 당장 복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수집과 고문서보관 작업을 두아나(Douana)에 있는 국제 아프리카미래 재단(Fondation AfricAvenir International)의 중심부에서, 우리의 한정된 예산이긴 하지만 우리 자신의 자본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가령 최근에 우리는 “Bila ba Baku(Dahomey), 1892”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한 증인이 1892년에 두알라(Douala)에서 다호미(Dahomey)의 용병 노예들의 반란을 목격한 것을 두알라 어로 구술한 것입니다. 이 문서는 문제가 되는 아짜이 파울린 올로크포나 이논(Adjai Paulin Oloukpona Yinnon)의 작업을 훌륭하게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sup>10)</sup> 이러한 계획은 발전하여 오늘 날 그것은 전통 가족들과 전통적인 족장관할구역의 문서들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에게 독일 식민지 정책 이전과 독일 식민지 정책이 수행되는 동안 카메룬 사회의 기능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계획의 명칭은 이렇습니다.

### 카메룬의 집단적 기억의 보존과 전수

1884-1916과 1920-1930년의 근대적 카메룬의 탄생 시기 동안

카메룬인의 역사적 증언 유산의 보존에 기여함

이것이 현재 우리의 상황입니다. 즉 우리 노력의 주된 목적은 카메룬인들에게 그들이 독일, 프랑스, 영국의 식민지 시기로부터 물려받은 지워져버린 기억을 되돌려주는 것이며 우리의 상대자들에게 그들 자신의 발전에 관한 새로운 독해, 그리고 그들과 우리의 상호적인 관계에 관한 새로운 독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2011년 우리는 유럽과 북미 상대국들의 행동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지점까지 이르렀으며, 그 행동은 우리의 주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것인 다양한 자원의 사용을 위해서 투쟁하는 아프리카 영토에 가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는 브라질, 인도, 중국, 혹은 남한과 북한 등등과 같은 부상하는

---

10) Adjai Paulin Oloukpona-Yinnon, “La révolte des esclaves mercenaires Douala 1893,” *Bayreuth African Studies Series* 10(1987).

국가들에게도 또한 여지를 마련하면서 관계를 다양화시키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이에 대해 화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저 새롭게 부상하는 힘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대국들은 그들이 아프리카에서 수익을 얻으려면 아프리카가 한편으로 그 가난한 거주민들을 여전히 남겨놓고 다른 한편으로 부유한 자원의 국가로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평소에 자신들의 재정적 권위를 확보하는 거주민들과 더불어 발전하는 아프리카는 다른 국가들과 다른 대륙에 대해 훨씬 더 흥미로운 상대국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10 억 이상의 아프리카 인구의 구매력은 더욱 강력하고 영리적인 교환을 허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의 지성인들은 경보 사이렌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몇 정치지도자들의 맹목에 빛을 비쳐줄 것을 유럽과 북미의 인텔리겐치아에게 요청합니다. 이 정치지도자들은 권력의 지렛대를 쥐고 있으면서, 아프리카와 소통하는 언어를 아직도 난폭한 힘으로서만 행사하는 전쟁의 수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전히 19세기처럼 행동한다고 할지라도 2011년의 아프리카인들은 자신들의 영토에서 주권자가 되기로 결심했으며 우선적으로 자신들의 국민을 위해 그 자원을 이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야 한다면 이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투쟁의 횃불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휴머니티 공동의 운명을 수호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이라는 의미에서 이해하고 행동하려는 경향이 가시적이지만 하다면 대화와 지체가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아프리카의 미래 국제 재단의 분과들의 즐기찬 개입과 작업에 대해, 그리고 북미와 유럽에서 자신들의 국가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또 다른 발의적 행위들에 대해 진정한 경의를 보내는 것이 정당하고 중요합니다. “당신은 우리 민족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더 이상 계속해서 자행할 수 없습니다. 아니오, 이제 됐습니다! 여기, 유럽에서, 여기 북미에서 우리는 휴머니티 공동의 운명을 끊임없이 옹호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속입니다!” 이러한 약속이 대륙들[간의 차이]을 넘어서 진심어린 화해를 허락할 것입니다.

초록

## 2011년 아프리카 민족들에 대한 유럽과 북미 정부들의 합의된 공격이 이루어지는 동안 유럽과 북미의 인텔리겐치아에게 고향

쿰마 엔둠베 III

1884년 유럽의 제국주의 열강들이 베를린에 모여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권 분배를 합의했듯이, 2011년 현재 다시 베를린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아프리카에 대한 서구의 공격을 결정한다. 유럽-북미의 아프리카에 대한 착취의 열망은 식민주의 이후에도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으며, 윤리, 도덕, 진리에 대립되는 이들의 폭력은 서구의 인텔리겐치아들에 의해 다시 각색되고 있다. 유럽의 인텔리겐치아들이 아프리카인들을 '야만의 민족'으로, 또 아프리카를 신이 내려준 유럽의 소유물로 간주하고 식민화를 정당화 한 것처럼, 이제 서구는 자신들의 탐욕을 '민주주의,' '자유'와 '발전'라는 용어를 빌어 타민족에 대한 학살과 지배를 정당화하고 있다. 서구 언론은 자원 확보와 세계패권을 위한 아프리카 공격의 진실은 함구한 채 세계여론을 주도하며 세계시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으며, 아프리카인들의 목소리는 세계로 전달되지 않는다. 이제 유럽-북미는 휴머니티라는 공공의 운명을 실현시키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서구의 아프리카 침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와있음을 아프리카인인 필자는 서구의 언어로 경고하며, 유럽과 북미의 지성인들에게 이 글을 통해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주제어 : 유럽-북미-아프리카 관계, 식민주의, 리비아 공격, 서구의 여론조작, 학문적 불균형

## Appel à l'intelligentsia européenne et nord-américaine pendant l'agression concertée de leurs gouvernements contre les peuples africains en 2011<sup>\*</sup>

Kum'a Ndumbe III<sup>\*\*</sup>

Mes chers collègues de la science, de la pensée et de la plume,

“Et ceterum censeo, Carthaginem esse delendam!”<sup>1)</sup>

(Et je suis d'avis que Carthage doit être détruit!)

C'est ainsi que clôturait Cato Censorius chacun de ses discours devant le sénat à Rome, même quand son discours ne concernait pas les relations avec l'Afrique. La guerre fut déclenchée en 150 av. J. C. et Carthage fut détruite. En ces mois tragiques de l'agression concertée des gouvernements européens et nord-américains contre les peuples africains depuis l'année

---

\* Discours d'ouverture à la conférence. “(Post) Colonialism between Cameroon and Germany Science, Knowledge and Justice,” 19-20 September 2011. Goethe-Universität Frankfurt/Main, Campus Westend, Casino Room 1.801.

\*\* Le Prince Kum'a Ndumbe III, ancien Président de l'Association Nationale des Poètes et Ecrivains Camerounais fut aussi vice-Président de l'Association des Ecrivains de l'Afrique Centrale. Professeur des universités en études germaniques, en histoire et en sciences politiques, il a enseigné à l'Université de Lyon II, à l'Université Libre de Berlin et à l'Université de Yaoundé I. Il est dramaturge, poète, romancier et essayiste.

1) (Im übrigen bin ich der Meinung, dass Karthago zerstört werden muss/ Et je suis d'avis que Carthage doit être détruit), exigence répétée à chaque fin de son discours au sénat romain par Cato Censorius, 234 avant J. C., mort en 149 av. J. C.

2010, en ces campagnes de bombardements intensifs des sites édifés à la sueur de nos fronts après les siècles d'esclavage et de colonisation qui nous avaient ruinés, en ces périodes de guerre médiatique de l'occident pour désinformer la population mondiale sur les actes barbares de pays dits 'civilisés' et 'démocratiques' perpétrés sur la terre d'Afrique, en ces moments tragiques de tueries massives de nos frères et sœurs commis par les armes sophistiquées de l'occident avec l'appui des nôtres intégrés dans la cinquième colonne des puissances du nord, oui en ces temps où l'intelligentsia européenne et nord-américaine prête sa plume engagée pour justifier l'innommable, la déchéance éthique et morale, il est urgent de vous lancer un appel pour que devant l'histoire, devant les peuples de la terre et devant Dieu, chacun prenne ses responsabilités.

## I. L'agression concertée contre les peuples africains en ce début du 21<sup>e</sup> siècle : leçons de l'histoire

Sur cette terre d'Allemagne, en votre capitale Berlin, l'Organisation du Traité de l'Atlantique Nord (OTAN) regroupant 28 pays avec *une population de 893 millions d'habitants* a décidé le 14 avril 2011 d'agresser de manière concertée et de pilonner par ses bombes sophistiquées le peuple de Libye composé de *6,17 millions d'âmes seulement*. Ni le gouvernement, ni le peuple libyen n'ont jamais déclaré la guerre à un pays européen ou nord-américain pour s'attendre à une riposte de Blitzkrieg, une guerre éclair. Ni le gouvernement, ni le peuple de Côte d'Ivoire n'ont jamais déclaré la guerre à un pays européen ou nord-américain pour s'attendre à des massacres collectifs d'hommes et de femmes qui n'aspiraient qu'à la souveraineté sur leur propre territoire. L'Europe alliée aux Etats-Unis d'Amérique a perdu en ces mois-ci la bataille de la promotion du destin commun de l'humanité, l'occident s'est mis à nu en étalant une violence extrême contre l'éthique, la morale et la vérité. L'argent, le profit et l'agression de haut banditisme international sont érigés en valeurs suprêmes pour la gestion de l'humanité, l'intelligentsia et les médias des grosses fortunes emballent ces nouvelles valeurs dans des enveloppes sur lesquelles sont gravés les

termes ‘démocratie,’ ‘liberté,’ ‘développement.’ Trop, c’est trop!

Moi, Prince Bele Bele, Professeur des universités de rang magistral, écrivain qui a cherché le dialogue en vous parlant dans vos langues européennes, je vous dis ceci : *trop, c’est trop!* Toutes les bornes ont été dépassées. L’occident nous fait la démonstration au quotidien, depuis l’agression contre l’Irak, qu’il n’est intéressé ni au destin commun de l’humanité, ni au dialogue entre les peuples. Son seul souci s’est dévoilé être la domination absolue sur le monde, domination militaire, domination financière, domination culturelle et domination de la pensée. Nous, qui en Afrique nous sommes battus jour et nuit pour convaincre nos peuples de la nécessité du dialogue avec l’occident, de l’urgence d’un engagement collectif pour le destin commun de l’humanité, nous avons perdu toute crédibilité, nous avons été fragilisés de manière durable par vos agressions concertées qui ne visent qu’à déposséder les autres peuples des biens qui leur ont été légués sur leur propre territoire. Tout ce qui est sur la terre ne devrait qu’appartenir à l’occident euro-nord-américain, un occident qui déterminera alors les miettes à laisser aux autres peuples.

1884-2011 : les bombardements en Côte d’Ivoire, en Libye, peut-être bientôt au Cameroun nous renvoient à la conférence de Berlin convoquée par le Chancelier allemand Otto von Bismarck du 15 novembre 1884 au 26 février 1885. En l’absence des Africains, les Européens décident de régler la navigation sur le fleuve Congo pour la propension de l’économie de l’Europe en pleine révolution industrielle, avec ses énormes besoins en matières premières et en nouveaux marchés au-delà du continent européen. Les Européens s’entendent pour ne pas faire la guerre entre eux à cause de la dispute des richesses de l’Afrique. Ils doivent s’entendre autour d’une table de conférence à Berlin, déterminer le partage des zones d’influence respectives sur le sol africain, puis surgir collectivement sur le continent et agresser au même moment les gouvernements et peuples africains qui ignoraient tout de ce plan d’agression concertée. L’intelligentsia européenne couvrira ces actes de barbarie en qualifiant plutôt les Africains de ‘peuples barbares,’ ‘peuples ayant vécu en marge de l’histoire,’ comme prétendait Hegel, ‘peuples illettrés,’ ‘peuples païens,’ ‘peuples en attente de la civilisation,’ ‘peuples nécessitant la lumière de l’évangile de Jésus-Christ,’ un fils de

l'orient rebaptisé et importé chez nous comme un 'Jésus Christ blanc de l'occident.' La colonisation sera donc justifiée par les médias européens, les livres scolaires et universitaires, les livres religieux, les romans et pièces de théâtre des penseurs et hommes de plumes européens. Rarissimes furent les voix de penseurs européens qui s'insurgèrent contre l'imposture de cette guerre de destruction massive contre les peuples africains rebaptisée 'pacification' au 19<sup>e</sup> et 20<sup>e</sup> siècle.

## II. Ignorance, imposture et manipulation de l'opinion

"L'Afrique n'est pas une partie historique du monde. Elle n'a pas de mouvement historique en elle-même que nous entendons précisément par Afrique est l'esprit ahistorique, l'esprit non développé, encore enveloppé dans des conditions de naturel et qui doit être présenté ici seulement comme au seuil de l'histoire du monde."<sup>2)</sup> Le philosophe allemand Friedrich Hegel (1770-1831) avait donc fixé les repères essentiels. Il sera repris *176 ans après* sa mort par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Nicolas Sarkozy le 26 juillet 2007 dans un discours insultant les peuples africains à l'Université Cheikh Anta Diop de Dakar :

Le drame de l'Afrique, c'est que l'homme africain n'est pas assez entré dans l'histoire. Le paysan africain, qui depuis des millénaires, vit avec les saisons, dont l'idéal de vie est d'être en harmonie avec la nature, ne connaît que l'éternel recommencement du temps rythmé par la répétition sans fin des mêmes gestes et des mêmes paroles. Dans cet imaginaire où tout recommence toujours, il n'y a de place ni pour l'aventure humaine, ni pour l'idée de progrès. Dans cet univers où la nature commande tout, l'homme échappe à l'angoisse de l'histoire qui tenaille l'homme moderne mais l'homme reste immobile au milieu d'un ordre immuable où tout semble être écrit d'avance. Jamais l'homme ne s'élance vers

---

2) Friedrich Hegel, *Cours sur la Philosophie de l'histoire*, cité in : Kum'a Ndumbe III, Jean Yves Loude, *Dialogue en Noir et Blanc, Présence Africaine* (Paris, 1989), 27.

l'avenir. Jamais il ne lui vient à l'idée de sortir de la répétition pour s'inventer un destin.<sup>3)</sup>

Voilà la conviction d'un président français en ces temps de bombardement en Côte d'Ivoire et en Libye. Nous continuons en Afrique à insister sur le respect de l'univers dont nous ne sommes que des composantes, et du respect de la nature qui nous porte et qui nous permet de vivre. Tout progrès de l'humanité dépend de ce respect-là, contrairement aux idées de progrès du libéralisme capitaliste guerrier qui plonge l'humanité dans une détresse sectaire, arrachant l'essentiel au plus grand nombre, et gavant une toute petite minorité de la planète.

L'écrivain français Victor Hugo, auteur obligatoire au programme des écoles de l'Afrique francophone, donnait lui, le sens de l'action déjà le 18 mai 1879 :

Cette Afrique farouche n'a que deux aspects : peuplée, c'est la barbarie, déserte, c'est la sauvagerie, mais elle ne se dérobe plus. Au dix-neuvième siècle, le blanc a fait du Noir un homme ; au vingtième siècle, l'Europe fera de l'Afrique un monde. Refaire une Afrique nouvelle, rendre la vieille Afrique maniable à la civilisation, tel est le problème. L'Europe le résoudra. Allez, Peuples! Emparez-vous de cette terre. Prenez-la. A qui? A personne. Prenez cette terre à dieu. Dieu donne la terre aux hommes. Dieu donne l'Afrique à l'Europe. Prenez-là.<sup>4)</sup>

---

3) Discours de Nicolas Sarkozy à l'Université Cheikh Anta Diop, Dakar, 26 juillet 2007 [http://www.lepost.fr/article/2009/04/07/1486509\\_video-le-discours-de-dakar-de-sarkozy.html](http://www.lepost.fr/article/2009/04/07/1486509_video-le-discours-de-dakar-de-sarkozy.html), voir aussi : Sous la direction de Adame Ba Konaré, Petit précis de remise à niveau sur l'histoire africaine à l'usage du Président Sarkozy, préface d'Elikia Mbokolo et postface de Catherine Clément, Ed. La Découverte, Paris, 2008.

4) 31è anniversaire de l'abolition de l'esclavage. Banquet commémoratif donné à Paris le 18 mai 1879 sous la Présidence de Victor Hugo. Compte rendu par Gaston Gerville-Réache, Brière, Paris, 1879, 17.

Incroyable, n'est-ce pas? Et de la bouche d'un brillant intellectuel européen, censé détenir le savoir. Mais voilà la structure mentale qui guide l'intellect et le subconscient de la plupart des intellectuels, hommes et femmes politiques de l'Europe quand leurs pensées se dirigent vers l'Afrique, et ils ont même réussi à injecter ce virus dans l'âme de certains de leurs élèves et disciples africains.

Dieu a donc donné l'Afrique à l'Europe, c'est sa propriété décidée et voulue par Dieu. La conférence de Berlin de 1884/1885 mettra pour la première fois en place une agression concertée de l'Europe contre l'Afrique, selon la vision de Hegel, Victor Hugo et autres intellectuels européens. L'OTAN demandera à la France et à la Grande Bretagne en 1957 de s'assurer avant de céder à l'indépendance des pays africains que toute l'Afrique restera une zone d'influence exclusive de l'OTAN.<sup>5)</sup> Or le Colonel Kadhafi, Président de la Jamahiriya libyenne, investira des sommes impressionnantes dans l'unification de l'Afrique en soutenant de manière décisive l'Union Africaine. Kadhafi financera en 2006 le premier satellite africain RASCOM avec 300 millions \$ sur les 400 millions \$ nécessaires. La Banque Africaine de Développement financera 50 millions, et la Banque Ouest Africaine de développement 27 millions. L'Afrique sera ainsi libérée dès 2007 des 500 millions \$ qu'elle devait payer chaque année à l'Europe pour les conversations téléphoniques même à l'intérieur du continent et le transit des voix sur les satellites européens comme Intelsat. Les 30 milliards \$ appartenant à la Libye et saisis par les USA devaient contribuer à financer la Banque Africaine d'Investissement à Syrte en Libye, la création dès 2011 du Fonds Monétaire Africain avec un capital de 42 milliards \$ avec Yaoundé comme siège et la Banque Centrale Africaine avec son siège à Abudja au Nigéria qui devait émettre une monnaie unique africaine<sup>6)</sup>. L'OTAN devait mettre fin à tout prix à cette expérience d'émancipation des peuples africains.

---

5) "The United Kingdom and France were urged before handing over power to secure control of key strategic installations, to ensure full use of African territory" in: Christopher Coker, *NATO, the Warsaw Pact and Africa* (London 1985), 8.

6) Jean-Paul Pougala, Les vraies raisons de la guerre en Libye, in : <http://www.asteclist.com/jupgrade/index.php/forum/blog-post/910-les-vraies-raisons-de-la-guerre-en-lybie-par-jean-paul-pougala>

“ Et ceterum censeo, Carthaginem esse delendam! ”

clamerait encore Canton l'Ancien

C'est pour cela qu'une autre conférence de Berlin se tiendra le 14 avril 2011 sous les auspices de l'OTAN pour mener une autre agression concertée avec des armes hautement sophistiquées contre le gouvernement et le peuple de Libye. Malgré la guerre médiatique de l'occident dans les foyers africains, nos peuples ont compris et ne sont plus dupes. En Libye de Kadhafi, sont gratuits le logement, la médecine, l'éducation, la nourriture. Où avez-vous vu cela en Europe, en Amérique, ou même en Afrique? L'occident ne prend plus de gangs, la honte a disparu, il n'y a plus de moralité, seule l'intoxication, le mensonge et la force brute doivent dorénavant régler les relations entre l'Europe et l'Afrique.

L'Europe et l'Amérique du nord doivent s'assurer que les dirigeants africains au pouvoir leur laisseront la pleine liberté d'action dans le pillage systématique des richesses africaines. Ceux qui s'y opposeront seront renversés, exilés, tués ou traînés devant une Cour Pénale Internationale spécialement conçue pour cette cause. Même le terme justice s'est vidé de son sens étymologique dans ces relations internationales bien spéciales. Etant le premier pays de la coalition OTAN à bombarder la Libye le 19 mars 2011, la France revendique une quote-part de 35% du pétrole libyen en ce septembre 2011. Les médias occidentaux ne nous disaient-ils pas qu'il s'agissait plutôt de chasser les dictateurs et d'importer la démocratie dans les pays africains? Alors, que vient faire une quote-part de pétrole dans cet élan de civiliser, de démocratiser l'Afrique, Monsieur Sarkozy?

Voilà où en sont les relations entre l'Europe, l'Amérique du Nord et le continent africain en cette année 2011, et les relations dans la recherche scientifique, dans la diffusion des résultats de recherche, dans la dissémination du savoir, dans les relations culturelles s'inscrivent dans le champ des intérêts politico-économiques transformés aujourd'hui en champs de batailles militaires. Notre conférence aujourd'hui à Francfort sur le (post) colonialisme entre le Cameroun et l'Allemagne s'inscrit parfaitement dans le sillage de l'utilisation brutale

de la force pour dire aux Africains qu'ils ont à suivre les chemins tracés par leurs partenaires euro-américains, la diplomatie ayant largement cédé la place à la force de frappe de l'argent et aux bombardements militaires.

### III. Du financement de la recherche et d'un supposé dialogue scientifique

Alors, me demanderez-vous, et nous qui au-delà des continents oeuvrons pour un dialogue dans la recherche scientifique, dans la culture, dans la pensée, à quoi devons-nous dorénavant nous en tenir? Et moi de vous demander : un pays pauvre très endetté serait-il en mesure de financer la recherche scientifique et de mettre sur pied un dialogue scientifique international? Les 46 pays africains d'Afrique noire ont accumulé une dette globale de 400 milliards de \$. Nous sommes donc très endettés. Ce que l'on ne nous dit pas souvent, c'est que la France, la Grande-Bretagne, et l'Italie ont accumulé chacun une dette de 2.000 milliards de \$, et que le champion de l'endettement, les Etats-Unis d'Amérique, affichent une dette de 14.000 milliards de \$. Et les médias euro-américains ressassent que le grenier Afrique est pauvre, et on ne cesse de venir s'approvisionner dans le grenier. En 2011, la plupart des pays africains ne sont pas parvenus à maîtriser l'exploitation et l'utilisation de leurs richesses, et encore moins la juste répartition. Ainsi, la recherche scientifique souffre à être financée avec des moyens adéquats.

Dans ses relations avec l'Allemagne, le Cameroun finance les enseignements de l'allemand dans le secondaire, dans le supérieur, et des encouragements financiers à la recherche sont octroyés aux enseignants du supérieur. Les départements d'histoire professent aussi des cours d'histoire de relations entre le Cameroun et l'Allemagne. Cependant, il manque de véritables institutions de recherche camerounaises ayant pour objectif de se focaliser sur l'histoire, la politique, l'économie ou la culture entre les deux pays. Le Cameroun n'a installé aucune institution en Allemagne, en Europe ou ailleurs non plus pour faire ce travail. L'Allemagne par contre, grâce à ses structures universitaires et de recherche a créé des points focaux sur l'Afrique comme à Bayreuth, Leipzig, Berlin, Hambourg, Francfort, etc.. Des institutions

comme le DAAD, Humboldt-Stiftung, les fondations politiques comme la Friedrich-Ebert, Konrad Adenauer, Heinrich Böll, Hans Seidel, Friedrich Naumann, l'Institut Goethe, très actifs en Allemagne sont en partie présents sur le sol camerounais. A l'université de Yaoundé I, le Centre d'Information du DAAD a été créé en 2009 et rayonne dans la sous région. Le bâtiment du Centre pour la Coopération Scientifique entre l'Afrique et l'Allemagne (CCSAA) sera opérationnel avant fin 2011. Les deux centres sont financés par l'Allemagne. Si d'un côté l'Allemagne a mis en place des institutions pour assurer la recherche sur et avec le Cameroun, le Cameroun peine à avoir des structures équivalentes. Dans ce déséquilibre, il est compréhensif que l'orientation et les champs de la recherche sur le (post) colonialisme, le débat entre les deux parties sur la question, la diffusion des résultats de recherche, dépendent des initiatives, des structures et des financements essentiellement allemands. Ce déséquilibre trace des limites à la conception, à la mise en place et aux résultats de la recherche sur nos relations bilatérales.

Je voudrais illustrer ce déséquilibre par un exemple. Quand j'ai eu à diriger le département d'études germaniques à la Faculté des Lettres et Sciences humaines de l'Université de Yaoundé dans les années 80, j'ai constaté que dans la recherche sur la période coloniale allemande, un déséquilibre existait déjà dans les sources utilisées. Dans les archives au Cameroun et en Allemagne on retrouvait essentiellement les documents confectionnés et rédigés par les autorités administratives, religieuses ou civiles allemandes, à l'exception de quelques rares documents produits par des Camerounais. Le déséquilibre se constatait donc déjà dans la production même des documents d'archives, or il s'agit bien de relations bilatérales. J'ai donc mis en place en 1982 un groupe de recherche pluridisciplinaire intitulé «Souvenirs de l'époque allemande au Cameroun», et un second groupe, «Traduction de textes fondamentaux de l'époque coloniale allemande», puisque la majorité des chercheurs camerounais sur cette époque ne lisait pas l'allemand. Nous avons sillonné tout le Cameroun et nous avons pu retrouver des Camerounais déjà très âgés qui avaient encore vécu directement ou par leurs parents interposés la période allemande. C'est ainsi que nous avons pu enregistrer 120 témoins camerounais de l'époque allemande sur la base d'un questionnaire

pluridisciplinaire très détaillé. Nos interlocuteurs s'exprimaient dans leurs langues camerounaises, en français ou en anglais. Ces archives sonores vieilles de bientôt 30 ans sont menacées de destruction à cause de leur support, les bandes magnétiques. Le travail scientifique aujourd'hui consiste à les sauver en les mettant sur un autre support, à les transcrire, à les traduire et à les publier aussi bien dans les langues originales qu'en français ou en anglais.

Nous avons cependant remarqué que dans le projet que nous avons formulé pour mener méthodiquement ce travail, la plupart des partenaires s'intéressent uniquement à la transposition des interviews sur un autre support, ce qui leur permettrait d'avoir accès à ces documents. Un partenaire américain dira qu'il s'agit effectivement de la question de 'ownership' de ces archives, en insistant clairement que pour être financés, nous devrions renoncer à la 'ownership' de ces archives au profit du partenaire américain et de ceux que lui il désignera. Or les partenaires intéressants pour nous seraient ceux que l'ensemble du projet intéresserait, de la transmission sur un autre support à la traduction et à la publication des interviews, étant donné que les résultats de cette recherche feraient avancer la recherche sur ces relations internationales et bilatérales et reviendraient aux différents partenaires impliqués.

Dans le cheminement de cette recherche de témoins camerounais de l'époque allemande, nous avons pu obtenir au fil des ans des documents rédigés à la main dans les langues camerounaises par ces témoins ou leurs parents. Les chefferies traditionnelles, les familles des maîtres d'écoles ou d'évangélistes camerounais de l'époque allemande possèdent encore des documents qu'il est urgent de sauver. Nous faisons ce travail de collecte et d'archivage au sein du siège de la Fondation AfricAvenir International à Douala, dans la limite de nos moyens, mais sur nos propres fonds. Nous venons par exemple d'acquérir récemment le document 'Bila ba Baku (Dahomey), 1892,' un récit en langue duala de la révolte des esclaves mercenaires du Dahomey à Douala en 1893 par un témoin oculaire. Ce document complèterait à merveille le travail de Adjai Paulin Oloukpona Yinnon sur la question.<sup>7)</sup> Le projet a évolué et inclut aujourd'hui les archives des familles et des chefferies tradi-

tionnelles qui nous instruisent sur le fonctionnement des sociétés camerounaises avant et pendant la colonisation allemande. Le projet est intitulé :

Preservation and Transmission of Cameroon's Collective Memory

Contribution to the preservation of the heritage of the Cameroonian witnesses of history during the birth of modern Cameroon in 1884-1916 and 1920-1930

Voilà où nous en sommes aujourd'hui, l'objectif majeur de nos efforts étant de rendre aux Camerounais la mémoire effacée qu'ils ont héritée des colonisations allemandes, françaises et anglaises et de permettre à nos partenaires une nouvelle lecture de leur propre évolution et de nos relations mutuelles.

Nous avons atteint en 2011 le seuil de l'inacceptable et de l'intolérable dans l'agissement des partenaires européens et nord-américains sur le sol d'une Afrique qui se bat pour sa souveraineté et pour l'utilisation propre de ses diverses richesses. L'Afrique aujourd'hui diversifie ses relations en accordant aussi une place aux pays émergents comme le Brésil, l'Inde, la Chine ou les deux Corées. L'Europe et l'Amérique ne devraient pas s'en offusquer, puisque elles-mêmes entretiennent des liens les plus étroits avec ces nouvelles puissances. Il est urgent de faire comprendre à tous nos partenaires que l'Afrique ne doit pas rester un continent riche avec des habitants pauvres pour que les partenaires puissent y trouver un bon compte. Une Afrique développée avec des habitants qui assurent leur dignité financière au quotidien sera un partenaire encore plus intéressant pour les autres pays et continents, car la force d'achat de plus d'un milliards d'Africains permettra des échanges encore plus renforcés et lucratifs.

Les intellectuels africains sonnent la sonnette d'alarme, nous demandons à l'intelligentsia européenne et nord-américaine d'éclairer la cécité de certains de leurs leaders politiques détenant les leviers du pouvoir et devenus des chefs de guerre dont le seul langage avec

---

7) Adjai Paulin Oloukpona-Yinnon, "La révolte des esclaves mercenaires Douala 1893," Bayreuth African Studies Series 10(1987).

l'Afrique reste la force brutale. Or même si ceux-là agissent encore comme au 19<sup>e</sup> siècle, les Africains de 2011 sont décidés à devenir souverains sur leur sol et à utiliser leurs richesses d'abord pour leur propre population. Nous sommes prêts à mourir pour cela, s'il le faut, et à transmettre le flambeau de la lutte à nos enfants et petits-enfants. Mais le dialogue et la sagesse sont préférables, pourvu que de l'autre côté, il y ait un penchant visible pour comprendre et pour agir dans le sens d'une coopération internationale sauvegardant le destin commun de l'humanité. C'est pour cela qu'il est honnête et important de rendre un vibrant hommage à l'engagement et au travail sans relâche des sections d'AfricAvenir International en Europe et à d'autres initiatives qui en Amérique du nord et en Europe disent ceci à leurs dirigeants : "vous ne pouvez plus continuer à faire tout cela au nom de nos peuples. Non, ça suffit! Ici en Europe, ici en Amérique du nord, nous continuons à plaider pour un destin commun de l'humanité! Voilà notre engagement!" C'est cet engagement qui permettra la réconciliation sincère, au-delà des continents.

- ▶ 논문 접수일 : 2011년 11월 01일
- ▶ 논문 심사일 : 2011년 11월 08일
- ▶ 논문 게재일 : 2011년 11월 16일

## Abstract

## Appel à l'intelligentsia européenne et nord-américaine pendant l'agression concertée de leurs gouvernements contre les peuples africains en 2011

Kum'a Ndumbe III

L'OTAN, en cette année de 2011, décide avec les pays occidentaux l'agression des pays africains de même qu'en 1884 les grandes puissances impérialistes de l'Europe se sont réunies pour la concertation du partage de leurs droits sur le continent africain. L'ambition d'exploitation de la ressource africaine continue même après la fin de la colonisation et la violence des pays occidentaux qui trahit l'éthique, la morale et la vérité est déformée encore par l'intelligentsia occidentale. Les occidentaux justifient en ce moment la tuerie et la domination sur les autres peuples au nom de la "démocratie," de la "liberté" et du "progrès" de même qu'en passé, les intelligentsias européens ont justifié la colonisation en appelant les peuples africains "peuples barbares" ou en considérant l'Afrique comme propriété donnée à eux par Dieu. Les médias occidentaux dirigent les médias mondiaux en dissimulant la vérité de l'agression occidentale de l'Afrique qui n'est d'autre que l'assurance de la ressource africaine et la suprématie sur ces pays. Ils voilent les yeux et bouchent les oreilles des citoyens mondiaux. La voix des peuples africains ne sont pas transmis au monde. Désormais il est en effet inévitable que l'Europe et l'Amérique du Nord échoue à sauvegarder le destin commun de l'humanité. Moi, l'écrivain africain avertis en langue occidentale que le pillage occidentale faite aux peuples africains a abouti à être insupportable et appelle les intelligentsias d'Europe et d'Amérique du Nord d'assumer leur responsabilité par cet article.

□ mots-clés: relation d'Europe et d'Amérique du Nord, colonisation, agression de Lybie, déformation d'opinion publique faite par les occidentaux, dissymétrie scientifique.